논어 7편 술이 35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奢則不孫，儉則固；與其不孫也，甯固。」

독음 · 자왈 사즉불손 검즉고 여기불손야 녕고

쉬운 풀이(요약) · 사치하면 교만해지고 검소하면 고루해질 수 있다. 교만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루한 쪽이 낫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奢 사치할 사 사 / 則 곧 즉

不 아닐 불 / 孫 손자 손 손 / 儉 검소할 검 검 / 固 굳을 고 고

與 너울너울할 여 여 / 其 그 기 / 也 어조사 야 / 甯 편안할 녕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